

'당신의 청렴, 나주의 품격' 나주시, 설 명절 청렴확산 캠페인 성료

명절 연휴 투명·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목표 청렴송 송출·청렴주의보 팝업창·청렴문자 전송 등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나주시 공직사회에 '청렴 주의보'가 내려졌다. 청렴 위반 행위 발생 위험이 높은 명절 연휴 기간 비위 발생을 사전 예방·차단하고 부패행위 방지와 관련된 공직자 개개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나주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24일까지 설 명절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8일 공무원노조와 함께 시청사 본관·별관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청탁금지

법, 음주운전 근절 관련 안내 사항이 담긴 전단지과 덕담을 나누며 명절 연휴 청렴 의식 함양을 당부했다. 16일부터 이날까지 일과시간 5분 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인 청렴송을 청내 전체 부서에 송출해 매일 아침 청렴을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PC행정시스템에는 '청렴주의보' 팝업창을 띄워 명절 전·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및 공직 분위기 저해 행위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용역,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 등 4대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금품, 선물, 식사·편의 제공 등 금지사항을 게시하고 청렴동참 문자를 매주 발송해 전 직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캠페인 이후 '청렴 UCC&청렴라디오', '청렴라이브&청렴골든벨', '청렴·반부패 문화 확산 가두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공직사회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탁금지법 준수 등 청렴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깨끗한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며 "청렴한 나주 공직사회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청렴한 공직자가 곧 나주시 행정의 얼굴이라는 마음과 각오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나주=송준표기자



농협 화순군지부, 설 연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화순군청·농협 화순군지부·농주농협·도곡농협 30여명 참여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지부장 김중명)는 화순군청 설맞이 화순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순군청, 농협 화순군지부, 농주농협, 도곡농협 30여명이 참여했다. 김중명 지부장은 "설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즐거운 명절에 가족친지들과 정을 나누고, 더불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적 알리고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구례군 '군민과 소통의 장 공감 대화' 성료

신속한 현장 확인 및 적극적 해결 의지 공감



구례군은 민선 8기 첫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군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군민 공감 대화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 13일 간전면·토지면을 시작으로 16일 구례읍·광의면, 17일 용방면·

산동면, 19일 문척면·마산면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선 8기 비전을 제시하며 군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특히, 민선 8기 군정 보고서를 파워포인트로 보고하여 군민이 군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했다. 군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 등을 즉각 답변했으며, 법적인 제약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세심하게 다뤘다. 향후, 군민들의 건의사항 총 177건에 대해 해당 부서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시급한 사안인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건의사항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공감 대화의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담양군,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간담회

이병노 담양군수, 산업현장 목소리 들으며 발로 뛰는 '현장행보' 이어가



담양군은 지난 18일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열악한 대내외의 경제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을 격려하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담양군의 기업친화적 지원정책을 홍보했다.

현재 관내에는 에코하이테크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무정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등 4개의 산업단지에 총 216개 업체(종업원 2,216명)가 입주해 있으며, 산업단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입주기업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이병노 군수는 "앞으로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입주기업에 안정적으로 지원해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화재 시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공업시설의 특수함을 고려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화재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3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단 종사자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근로자 행복주택(94호)과 다양한 문화·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2월 14일까지

장성군이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한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오는 2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4월 중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2021년 농어업 및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었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

관리법·가족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농자재비 인상 등으로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공익수당 지급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성=김수권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널 포스코A&C